오월 영령의 명복 빌며 16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함평군 공직자들과 군의회 의원 등이 5·18 민주화운동 42주기를 추모하며 나비 518마리를 날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42주년 5·18 추모 분위기 고조

민주묘지, 전국 각지서 참배 행렬…지난 주말 7만명 다녀가
금남로 전야제 행사·주먹밥 나눔 행사 부스 마련으로 분주
시내 곳곳서 오월풍물굿·민주평화대행진·오월시민난장 등

제42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 등 광주 곳곳이 추모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기념식과 함께 5월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 전야제를 앞두고 1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국내외에서 온 참배객이 줄을 잇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5·18희생자들이 잠든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기념일을 앞두고 참배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하루 평균 600~1600명 수준이던 참배객들이 11일부터는 2000~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14~15일) 이틀간 참배객은 7만명에 달했다.

16일 들어서는 광주·전남지역 시도민 뿐 아니라 제주와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온 방문객들로 연일 붐비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등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단체 참배도 이어지고 있다. 5·18을 맞아 현장 체험을 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나비의 고장' 함평군 공무원들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나비 518마리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이색 행사를 열기도 했다.

17일 5·18묘지에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최로 추모제가 열린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과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6일 오후 들어 금남로는 차량 통제가 시작됐다. 5월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 전야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다.

전일빌딩 앞 도로 한복판에는 전야제 무대설치 공사가 한창이고 도로 곳곳에는 주먹밥 나눔 등 5월 체험행사 준비를 위한 천막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다. 금남로에 자리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도 5월 기록물을 보려는 방문객이 잇따랐다.

이곳 금남로에서는 17일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슬로건에 맞춰 5·18 전야 행사가 열린다.

시내 곳곳에서 오월풍물굿, 민주평화대행진, 오월시민난장, 전야제 등 온종일 행사가 이어진다.

행사를 주최하는 제42주년 5·18행사위원회는 "2년만에 5·18 전야행사의 완전한 부활"이라며 "코로나19로 닫힌 금남로 광장을 활짝 열고 전야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월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위는 이어 "1980년 도청사수의 밤, 1990년대 오월투쟁 광장집회를 재현, 광주의 오월을 지켜온 문예 일꾼들과 동시대의 신진 아티스트들이 민주·평화·인권·희망과 나눔·연대와 통일의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18 주간을 맞아 학술대회도 잇따라 열린다.

17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지에선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2022 광주민주포럼'이 열린다.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신시아 마웅(미얀마 난민 의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포스트 전두환,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기조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18일 당일에는 5·18행사위 주관으로 광주YMCA 무진관에서 '국가폭력 진상규명, 그리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민주묘지 18일 교통 제한

광주보훈청, 오전 7~11시 청옥삼거리~수곡·태량삼거리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주변 도로 통행이 통제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기념식 당일인 18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광주시 북구 청옥 3거리에서 5·18 묘지까지, 수곡·태령 3거리에서 국립 5·18민주묘지까지 차량통행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정부 기념식 당일 차량 혼잡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5·18민주묘지 주차증을 받은 인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광주보훈청은 이번 기념식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뒤 치러지는 행사여서 많은 참석자의 방문이 예상돼 교통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안내했다.

경찰과 광주보훈청 안팎에서는 이번 기념식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정부기념행사여서 여야 국회의원 다수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와 학생 등 2000명 이상의 많은 참석자가 5·18민주묘지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6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오전에도 5·18민주묘지 주변 차량 통행이 제한된 바 있다.

광주보훈청과 광주시는 기념식장 주차장 주차권을 받지 못한 참석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동초등학교와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설치된 임시주차장에서 5·18민주묘지까지 셔틀버스(10분 간격 순환)를 운행한다. 또한, 참배객 편의를 위해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06번도 국립묘지와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기념식 당일 많은 국민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주변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념식 초청 인사 외에는 기념식이 끝나는 낮 12시 이후 민주묘지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립 5·18 민주묘지 인근 교통 통제 구간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광주트라우마센터, 오월심리치유센터 운영

17~18일 5·18민주광장 등서

광주트라우마센터가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17~18일 5·18민주광장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시민과 국가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월심리치유이동센터를 운영한다.

'오월증후군'은 해마다 5월만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르면서 불안이나 답답함, 분노나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일컫는다.

오월심리치유이동센터는 광주 시민의 '오월증후군'을 치유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5월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센터 직원과 자원활동가, 국제인턴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오월 증후군 설명, 치유대상자 발굴,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하는 응원메시지 수집, 5·18 피해자 실태조사 및 트라우마 치유사업 홍보활동 등이 펼쳐진다.

김정민 광주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치유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월심리치유이동센터를 통해 광주가 더욱 안전한 치유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늘한 전야제 밤…외투 챙기세요

17~18일 대체로 맑음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이 열리는 17일과 18일 광주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 10~17도, 낮 최고기온 23~29도로 평년기온(24~26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밤 기온은 17도 내외로 서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식이 열리는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화재예방에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며 "당분간 낮·밤 일교차가 크므로 외투를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